

홈 > 뉴스 > 뉴스 > 북미 | 기타

다솜한국학교, '한국 알리기 홍보 콘텐츠 대회' 대상

〈This is Korea! Samulnori〉로 그랑프리 수상

2016년 01월 04일 (월) 10:33:48

김민혜 기자 ✉ pinkmin42@gmail.com



▲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주관 '한국 알리기 홍보 콘텐츠 대회'서 대상을 수상한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 학생들이 주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원장 최철순)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 알리기 홍보 콘텐츠 대회'에서 그랑프리(대상)를 차지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한동만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응모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 〈This is Korea! Samulnori〉는 4분 38초짜리 동영상으로, 다솜한국학교 대한민국 반 최인표(9학년), 노현우(9학년), 전시현(8학년), 권민우(8학년) 4명의 학생이 사물놀이 지도교사인 원종은 교사의 도움으로 제작했다. 한국학교 특활반에서 배우고 있는 사물놀이 악기의 구성과 그에 담긴 의미, 그리고 사물놀이 연주에 관하여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 자막이 들어 있어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사물놀이에 관해서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영상이다.

This is Korea! Samulnori (사물놀이)



학생들은 대상을 수상해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앞으로 더욱 한국어와 한국역사 문화 공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11월 21일에 있었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관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에서 장선진 학생이 동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큰 상을 받게 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기뻐했다. 다송한국학교 관계자들은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돕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올해 목표를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